출처=클립아트코리아

치솟는 은값에 실버바 품귀…대안 투자로 눈 돌린다

1년새 3배 급증 시중은행 작년 10월부터 판매중단
귀금속거리 한달 이상 대기…실버뱅킹·ETF 주목

국제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나란히 경신하면서 상대적으로 싼 '은' 투자가 각광받고 있다.

실물 실버바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몰려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가 하면 실버뱅킹과 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체 투자가 떠오르고 있다.

20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 1돈(3.75g)의 시세는 살 때 기준 지난해 같은 날보다 255.18% 오른 2만 2270원을 기록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40.53%가 상승한 수치다.

투자 수요 확대에 더해 태양광·전기차·반도체 등 산업용 수요가 맞물리며 은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은 수요는 몰려들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공급이 크게 달리는 상황이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실버바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버바 판매는 2월 28일까지 중지한다고 예정돼 있다"며 "공급량에 따라 중단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 충장로의 귀금속 거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물량이 동났고 보유중인 곳도 1kg 실버바 1~2개 정도만 남아 있었다.

금은방들은 "요즘 은 투자를 위해 오는 손님이 많아졌다"며 "실버바를 사려면 예약하고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금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조폐공사 품질인증 실버바는 모두 품절됐고,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역시 100g과 500g 제품은 품절된 상태로 1kg 제품만 판매되고 있다.

실물 은 투자에 제약이 생기자 투자자들은 대안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버뱅킹이다.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은 통장 '실버리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410억원으로, 전년 말(445억원)보다 5배 넘게 늘어났다.

은행을 통해 실버뱅킹 통장을 개설하면 소액(0.01g 단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예약매매 서비스나 반복 매매서비스로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한국금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은 제품과 실버바가 품절됐다.

국제은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해 1g당 원화기준 은 가격이 바뀐다. 하지만 매수와 매도 시 각각 3.5%의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도 부과된다.

골드바로 인출이 가능한 골드뱅크와 다르게 실버바 인출이 불가능하고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닌 원금비보장형 상품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은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 높은 환금성 등 투자 간편성이 강점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일반계좌 외에도 ISA(200만~400만원 비과세), IRP(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어 절세에도 유리하다. 단,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외 상장 은 ETF의 경우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뿐아니라 ETF는 현물 가격을 추종하긴 하지만 실물 은이 아닌 간접 투자 상품이라 실제 은 가격과의 괴리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버뱅킹은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은 ETF의 경우는 유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금융상품 특유의 변동성 위험이 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전남 전문건설협회 "불공정 경쟁체제 바꿔야"

정기총회서 전문업체 시공권 보장 등 결의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 회장과 전국 시·도 회장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강성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돼야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생산구조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건설업 상호시장 구조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문공사의 전문성 훼손, 무분별한 저가 입찰, 현장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남 전문건설업계는 결의대회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왜곡된 생산구조의 정상화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업체의 시공권 보장 △현장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전문건설 전남도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행사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사회에 분명히 알리는 자리"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중앙회 및 전국 시·도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도회 장학재단이 선발한 올해 대표 장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 수여와 함께 혁신과 품질을 선도하며 전문건설 역사의 주춧돌을 세운 회원사에게 백년기업 증서를 전달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 설 직거래장터 개장협의회

내달 10일 광주검찰청·11일 본부서 운영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철호)는 최근 광주본부 3층 회의실에서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2월 10일(광주지방검찰청)과 11일(본부) 두차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광주 15개 지역 농·축협 판매사업 담당자들과 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 명절 직거래장터 품목 선정 및 운영계획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50여개의 우수 농축산물과 농협목우촌, 농협홍삼 등 가공식품 명절세트를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철호 본부장은 "농협 광주본부가 명절마다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마중물로 시민들에게 나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직거래장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농협,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 100곳 확대

곡성농협 딸기 농가 방문
노동력 절감 등 현황 공유

농협전남본부는 20일 곡성군 오곡면에 위치한 보급형 스마트팜 운영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광일 본부장을 비롯해 곡성농협 관계자, 보급형 스마트팜 참여 농가 등이 함께 한 이번 방문은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의 안정적 정착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농가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전남본부는 20일 곡성군 오곡면에 위치한 보급형 스마트팜 운영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농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제어,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기능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곡성농협(조합장 김완술)에 설치된 보급형 스마트팜은 지난해 도입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들은 작업효율 향상과 작물 생육관리의 편리성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곡성군, 농협경제지주, 곡성농협에서 협력해 추진된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의 모범 사례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을 위해 최대 60%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곡성농협은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곡성군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확보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도록 지원을 이끌어냈다.

전남농협은 올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급형 스마트팜 신규 100농가로 확대하고, 향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운영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판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광일 본부장은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라며 "올해는 더 많은 지역과 농가로 확대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콘진원, 도쿄서 한국 우수 웹툰 전시

'유미의 세포들' 등 '2026 K-웹툰 전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일 주일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 웹툰의 창작성과 산업적 가치를 일본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 '세로로 읽는 이야기: 2026 K-웹툰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MI'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 내 웹툰 독자와 콘텐츠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웹툰의 서사 구조와 제작 방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제교류 전시로, '월드 웹툰 어워즈 2025 수상작' 11편을 포함해 총 20여 편의 주요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시에는 지옥, 유미의 세포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이 참여한다. 각 작품은 스토리 전개 방식과 캐릭터 구성, 연출 기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일본 관람객이 웹툰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30일에는 웹툰 작가 최규석과의 토크쇼를 포함한 개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규석 작가는 '지옥', '송곳'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웹툰 작가로, 한국 웹툰의 서사적 깊이와 현실성을 보여준 대표 창작자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작품 제작 과정과 웹툰 창작 철학 등을 주제로 일본 독자 및 콘텐츠산업 관계자와 소통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일 콘텐츠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윤상 콘진원 콘텐츠수출본부 본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 웹툰의 이야기 구조와 제작 방식을 일본 현지 독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현지 기반의 산업 교류와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